

#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여는 민주노총의 세가지 행사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올**해 경제변화의 불려훈은 IMF이다. 그 만큼 IMF통치는 이 나라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계급에게는 삶을 파괴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IMF사태는 나라 안팎의 자본 사이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은 무자비하게 노동자를 희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IMF 시대는 제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또한 죽을 정도는 아니다. 잘만 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더 잘될 수도 있다. 정 안되면 과거에 누웠던 기득권이나 이익을 덜어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있어 임금동결과 삭감, 노동조건의 파괴와 정리해고는 곧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진배 없다. 지금 노동자들은 이 잔혹한 공격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 조직적 과제 해결을 앞당길 조직통합과 산별전환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세가지 중요한 행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월 중순에 치러질 금속산별연맹의 통합과 2월말에 있을 병원연맹의

이 일중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세가지 중요한 행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월 중순에 치러질 금속산업연맹의 통합과 2월말에 있을 병원연맹의 의료보건산업별노조로의 전환,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그것이다. 이 세가지 행사는 노동조합운동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비추어 어느 때의 행사와는 크게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료보건산업별노조로의 전환,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그것이다. 이 세가지 행사는 노동조합운동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비추어 어느 때의 행사와는 크게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의 통합대회는 2천여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산업연맹, 현충련으로 나뉘어졌던 조직을 하나로 합하는 거대한 행사이다. 세 조직은 각기 활동방식이 다른데다가 통합에 따르는 이해관계 때문에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조직력의 집중이라는 노동조합 조직원리를 실천해 냈다. 통합금속은 조합원 20만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1/3을 넘는 커다란 조직규모를 갖게 된다. 이러한 조직세는 이들 조직들이 민주노총의 투쟁을 앞장서 왔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이 운동방향을 세워 실천해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조직 가운데 금속노련이 가장 큰 조직이라는 점에서 양대 금속조직간의 교류와 연대가 증진된다면 노동전선의 통일은 앞당겨질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에 통합금속연맹은 거대한 조직규모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종래의 각기 다른 활동방식이나 운동노선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야 한다.

병원연맹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몇년동안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해왔던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사업의 성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연맹은

반세기여 걸쳐 완강히 뿌리내린 기업별노조의 틀을 깨트릴 수 있었고 마침내는 병원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통일을 이루는 터전을 일구어냈다. 보건의료산별의 출범은 다른 조직들에게 산별노조 건설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며, 기업별조직의 이해대립과 우려를 뛰어넘기 위해 벌였던 여러 가지 활동경험들은 다른 조직들이 산별로 전환하는데 많은 용기와 지혜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산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최소화하면서 남아있는 기업별노조를 흡수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전혀 다른 산별노조의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고 단일노조로서의 활동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는 1995년 11월 창립 이후 세번째이며 두 번째의 지도부를 뽑는 대회이다. 민주노총은 자주 민주 연대의 원칙에 선 강인한 투쟁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가혹한 탄압을 이겨내고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그 힘은 작년에 행했던 역사상 최초의 대중적 총파업을 통해 국가권력을 굴복시킨데서 단적으로 증명되었다. 이제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침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구성원의 권익을 증진시켜 왔던데서 부터 나라발전에 대해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걸머지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높아진 위상과 달라진 상황에 걸맞은 운동의 전망을 새로이 세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정확한 정세판단과 광범한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이다. IMF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산하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고 당장 노사정협의 이후의 투쟁을 이끌어 가야 한다.

산별노조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정치세력화도 진전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 대중의 권익과 국민생활을 함께 옹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하며 노동조합운동의 통일도 게을리할 수 없는 중요과제이다.

## 희망차고 힘있는 새 전망 열어야

이와 같이 민주노총이 이달에 치를 이 세가지 일들은 노동조합운동이 당면한 조직적 과제-조직력의 집중-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고 민주노총의 달라진 위상과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와 함께 세 조직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희망차고 힘있는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열어야 할 임무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새로이 조직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조직의 운영과 지도방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새 지도부의 역량 못지 않게 앞으로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과의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단련된 높은 자주 민주주의식과 단결력 투쟁력을 지닌 조직이다. 따라서 소수 몇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전체조직이 뒤흔들릴 위험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중조직이란 점에서 여러가지 의견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선거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이념과 정책대결이라는 원칙 아래 가로놓여 있는 개인 조직 지역 정파 사이의 갈등과 이들에 따른 감정대립이 그것이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나 선거가 끝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것이 심해지면 운동의 발전이 지체될 수도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이고 집중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좁혀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민주노조운동의 큰뜻과 전통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처럼 조직 전체의 단결과 통일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욱 힘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모두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가기를 기대한다.